

# 청소년범죄에 대한 경찰활동

## Policing for Juvenile Delinquency in Korea

이하섭\*, 조현빈\*\*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Ha-Sub Lee(sublh@hanmail.net)\*, Hyun-Bin Jo(johyunbin@korea.com)\*\*

### 요약

최근 들어 발생하는 청소년범죄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흉폭 화되어 있으며, 지능화되어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는 부모와의 관계· 가정환경의 영향에 의한 가정적 요인과 학교생활의 부적응·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의한 학교 요인, 주변유해 환경· 지역 주변에 의한 지역사회적 요인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였다. 실제 통계자료에서 청소년범죄는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증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지속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은 법· 제도의 정비를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기관의 협력증대, 유해환경제거 활동 등과 같은 비행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범죄는 단순히 경찰활동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경찰 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경찰 연계프로그램과 같이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 중심어 : | 청소년범죄 | 청소년 비행 | 다이버전 | 유해환경제거 |

### Abstract

At recent years, juvenile crime that occurred, that young people have done incredibly cruel and serious intelligence community is making a serious scandal.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youth crime under the influence of family environment factors and the hypothetical failure of school maladjustment and school factors due to contact with friends, around the area due to hazardous environment, local surroundings and social factors that committed a crime by were Juvenile crime in the real statistics on the rise again, starting the year 2005, and is increasingly young, violent crimes showed a high percentage increases. In order to prevent juvenile crime, these homes, schools, community work together to raise sustainable alternatives are needed. The police, as well as the maintenance of law and institutions, cooperation of youth organizations, increasing activity, such as removing harmful environmental youth leadership program, the flight needs to be improved. Today, juvenile crime is not simply a matter of police activities, school-linked program, police, community-linked programs, such as police comprehensive preparedness and commitment of the authorities is required.

■ keyword : | Juvenile Crime | Juvenile Delinquency | Diversion | Removing Hazardous Environments |

## I. 서론

청소년은 미래의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발달단계에 있는 세대들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바른 성장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는 점점 흉폭화·집단화·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발생건수도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나 시대를 막론하고 연령별 범죄 발생율은 10대 초반에 급증하기 시작하여 17세를 전후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이후 급격히 감소한다. 이런 현상은 심신의 미숙함·판단력과 자기통제성 부족, 단순하고 충동적인 청소년기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1].

이러한 청소년기의 심리적·생물학적 특징과 아울러 사회의 복잡화·유해환경의 증가 등 청소년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적 원인의 증가 및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로 인해 통제요인의 감소 및 학교의 훈육 역할 제한 등과 같은 사회적원인에 의해 청소년 범죄 및 비행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청소년범죄를 기존의 사법적 처리보다는 회복적 사법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범죄에 대해 사법기관의 관여를 최소한으로 하여 청소년기에 저질러 질 수 있는 실수를 인정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범죄의 특징과 원인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와 국내의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알아보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실태를 범죄백서 및 아동청소년백서 등과 같은 국가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이렇게 살펴본 실태를 바탕으로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결방안으로서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다른기관과의 협조 및 제도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외국의 선진사례 및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 비행의 정의 및 특징

#### 1.1 청소년기의 특성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기의 특징인 심신의 미성숙함, 판단력과 자기통제성 부족, 단순하고 충동적인 청소년기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1]. 따라서, 청소년비행을 정의하기에 앞서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인성이 형성되고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중요한 시기이자, 질풍노도의 시기라 불리우는 혼란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청소년기를 일반적으로 ‘반항의 시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반항의 시기에 대해 Hall(1904)은 청소년기가 인간의 진화과정에서 과도기적 단계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아동도 성인도 아닌 애매모호하나 위치에서 자아의식과 현실적응 사이의 갈등, 소외, 외로움, 혼돈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긴장과 혼란이 이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만든다는 것이다[2].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서 정신분석학의 Freud는 심리적 발달단계를 통해 청소년기를 설명하면서, 청소년기에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달과정 상의 충돌과 성인과 아동의 중간기에서 발생하는 충돌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Bandura(1964)는 Hall의 개념과 달리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청소년기에 많은 비행과 일탈을 저지르는 것이 과도기적이거나 진화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이러한 비행과 일탈활동들은 단순히, 성인들이 짜 놓은 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성인들의 정의 일 뿐이라고 하였다.

Hall과 Bandura의 정의를 모두 수용하는 입장을 Ericson은 청소년기가 질풍노도일 소지는 다분히 안고 있으나, 인간은 전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매단계마다 겪어야 할 위기와 이룩해야 할 발달과업이 있으며 청소년기만 유독 힘들고 넘기기 어려운 겪둥기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청소년기는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로 자신에 대한 결정을 잠시 보류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2].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청소년기는 다른 시기와 달리 비행에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개인적·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모든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은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청소년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1. 청소년기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

학자	청소년기에 대한 견해
Hall	청소년기는 아동도 성인도 아닌 애매모호하나 위치에서 자아의식과 현실적응 사이의 갈등, 소외, 외로움, 혼돈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긴장과 혼란이 이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만든다는 것
Frued	소년기에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달과정 상의 충돌과 성인과 아동의 중간기에서 발생하는 충돌이라고 설명
Bandura	청소년기가 질풍노도일 소지는 다분히 안고 있으나, 인간은 전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매단계마다 겪어야 할 위기와 이룩해야 할 발달과업이 있으며 청소년기만 유독 힘들고 넘기기 어려운 겪듯기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Ericson	청소년기는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로 자신에 대한 결정을 잠시 보류할 수 있는 시기
Maslow	인간이 자존감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욕구가 충족된 경우에는 자신을 가치롭게 여기며 본인에 대한 유용감을 갖게 되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을 갖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가짐
Marcis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문제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신질환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지며, 본인에 대한 낮은 자존감은 부모나 사회로부터 개인적 행동에 대한 강화나 지원이 생길 수 없을 때 부정적 정체성을 가짐

(출처 : 광대경, 2009: 21~24, 재인용 정리)

### 1.2 청소년 비행의 의미

청소년 비행은 성인범죄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달리 바라보고 있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성인범죄자와 분리하여 일반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있다[3].

우리나라의 소년법에서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범죄 및 비행에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범죄행위·촉법행위·우범상태를 소년비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소년을 범죄소년·우범소년·촉법소년으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범죄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

위를 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고 있다. 두 번째,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한다. 세 번째, 우범소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형벌법령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은 성격을 가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고,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3].

표 2. 소년법에 의한 비행청소년 분류

범죄소년	범죄행위를 저지른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됨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음
우범소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소년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을 지칭함 1.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격이 있음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함 3. 범죄성이 있는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도덕성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성격이 있음

(출처 : 이수정, 2007: 2, 재인용)

청소년 비행에 대해 Cohen(1955)은 미성년자로서 지켜야 할 수칙의 위반행위, 부모에 대한 불복종, 상습적인 학교결석, 가출, 음주 그리고 성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Durkheim(1976)은 사회에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준 경우는 물론 사회의 본질적인 안정과 믿음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4].

한국청소년개발원(1993)에서는 비행청소년이란 도덕적·윤리적·사회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청소년 시기에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4].

이수정(2007)은 법을 어기는 범법행위 뿐만 아니라 장래에 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보이며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체계를 위반하는 모든 일탈적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 청소년 비행이라고 정의하였다[4].

광대경(2009)은 청소년비행의 일차적 개념은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이며,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인 범죄는 물론이고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

하지 않으나 그 사회에서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 벗어난 일탈행동도 청소년비행이라고 정의하였다[2].

### 1.3 청소년 비행의 특징

청소년은 신체발달에 비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우며 주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등에서 폭력·음란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 유흥업소가 무분별하게 확산하면서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5].

그리고 청소년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자아의식과 현실적응 사이의 갈등, 소외, 외로움, 혼돈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긴장과 혼란이 이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만들기 때문에 보다 쉽게 비행에 접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지목된 또래집단에 의해 비행 및 범죄를 학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비행과 범죄가 전파·전염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2. 청소년 비행의 이론

청소년 비행을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되어 지고 있다. 특히, 범죄학 이론에 있어서 범죄사회학적 원인론에 의해서 많이 설명되어 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원인론에서 설명하고 있다. 생물학적 원인론에서는 청소년기의 생물학적 특성과 생화학적 요인, 신경계 장애 등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였고, 심리학적 원인론에서는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비행이 심리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여 불안한 심리상태, 비행에 대한 인지, 인성이론등을 통해 청소년기의 비행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밖에 사회학적 원인론에서는 다양한 사회학적 비행원인론을 들어 청소년기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활동을 통한 예방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사회학적 관점에서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해 접근하여 경찰활동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책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사회학적 원인론을 중심으로 청소년기의 비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2.1 차별접촉이론

서덜랜드가 주장한 차별접촉이론에서는 청소년이 저지르는 비행 및 범죄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법외반에 호의적인 가치나 태도를 학습하게 되면 그 아이는 비행의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했다. 즉 비행은 학습되는 것이고, 그것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서 학습된다고 했다[2]. 다시 말해, 청소년 비행은 주변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 범죄에 대해 직접적으로 학습하거나 범죄를 통제하는 자기 신념에 범죄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범죄 및 비행을 저지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접촉이론은 비행요인인 비행친구와의 접촉빈도, 접촉기간, 접촉대상에 대한 우선성, 접촉대상의 강도에 따라 학습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여,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주변인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 2.2 긴장이론

긴장이론적 관점에서는 청소년들이 겪는 긴장과 좌절이 비행의 동기로 작용한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머튼(Merton, 1938)의 아노미 이론(Anomie Theory)은 당시 미국사회의 높은 범죄율과 하위계층의 비행·범죄를 설명하려고 했다[2]. 청소년 비행비행은 청소년이 가지는 열망인 목표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간의 괴리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긴장이론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기에 가지고 싶어하는 목표 혹은 목적물이 경제적·계층 간의 차이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경우 자신의 목표를 위해 비행 혹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내용이다.

최근 청소년비행의 경우 정상적인 학교교육에서 도태되는 학생들이 청소년범죄에 접근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론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제도권 교육에서 소외된 일부 학생들과 자퇴생, 기타 가출청소년들이 진학이나 취업 등의 합법적 사회적응체계에서 낙

오됨에 따라 비합법적인 수단인 범죄와 비행을 통하여 경제적 성공 등의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높다[6].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행위는 청소년 자신이 가지고 싶어하는 목표 혹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수단이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이 발생한다고 긴장이론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 2.3 비행하위문화이론

하위문화이론은 사회의 어떤 소그룹들이 사회전반의 가치에 반하는 가치를 가지며 이들 소그룹 중 몇몇은 비행적이며 범죄적인 행위를 묵과하거나, 심지어는 조장시키기까지 한다고 주장하였다[7]. 즉, 사회 현상 중 당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소그룹 중 비행을 조장하고, 비행과 친숙한 하위문화를 가진 그룹이 존재하며, 이러한 하위문화는 비행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감정으로 접근하여 비행청소년을 양성한다고 한다.

특히, 청소년비행집단의 경우 경제적 성취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 보다는 정치적 지위획득에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타인의 비난이나 놀림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노력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하였다[2].

### 2.4 사회유대이론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서는 비행동기를 가진 청소년들이 비행동기를 통제해 줄 수 있는 통제기제의 여하에 달렸다고 보았다. 청소년이 그 인습적인 사회에 벗어나면 날수록 비행가능성은 높은 것이고, 사회와 유대를 가지면 가질수록 비행동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되어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였다[2].

이러한 유대에 대해 허쉬는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이 비행에 영향을 주어 범죄 혹은 비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통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청소년 비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회와 유대관계를 맺는데, 이러한 유대관계는 청소년이 가지는 특정 대상에 대한 애착, 주변에 대한 관여 및 관심, 청소년 활동에 대한 참여, 청소년이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한 신념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 3. 청소년 비행의 원인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단순하게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비행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비행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이전 연구에서 당사자의 반사회적인 태도나 성격적인 요인들과 같은 개인변수들이 재범에 영향을 주었지만 시간이 소요될수록 결혼과정과 같은 환경요인과 전과력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고 하였다[8].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다양한 이론으로서 설명되고는 있으나, 단 한 가지 이론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어 범죄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있어서,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많이 주는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원인에 대해서 범죄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 3.1 가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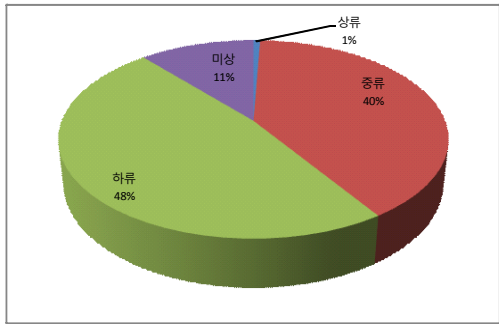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가정은 청소년기와 같이 예민한 시기에 청소년 비행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정 요인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중요시 되고 있다.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부모의 감독은 청소년의 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며,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을 조절하는 영역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약물사용 및 성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9].

그리고 청소년 비행요인에 대하여 가정의 환경수준이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비행 발생과 관련을 가지는 직접적인 지표로 보기는 어려우나 [표 3]의 내용과 같이 상류층에 의한 범죄발생은 전체의 전체 청소년범죄자 중 1%에 지나지 않으며, 미상인 11%를 없앴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90%대에 육박하는 하류층과 중류층의 청소년들에 의해 범죄가 발생한

다고 하여, 청소년 범죄의 요인에 있어서 가정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높은 비행원인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청소년범죄자의 가정 환경



〈출처 : 2011 범죄백서, 검찰청 편집〉

그리고 청소년 비행에 대한 김종수(200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범죄와 비행에 빠지는 이유 중에서 가정환경과 교우관계로 인해 발생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급변하고 개인주의되어 가고 있는 사회환경을 고려할 때,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가정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10].

그리고 아동학대와 같이 가정에서의 활동이 청소년기의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행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가출의 경우 가족구성원의 갈등과 빈번한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가족폭력 때문에 청소년이 집을 떠난다고 하였다[11].

그 결과 아동학대로 인해 심각한 학대를 받은 자녀는 청소년시기에 반사회적이 될 가능성이 많으며, 성인이 될 경우는 공격과 폭력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부모가 음주나 마약을 사용하거나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정폭력과 자녀학대 또한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11]. 따라서, 청소년기의 비행행위는 가정의 환경과 부모의 훈육에 의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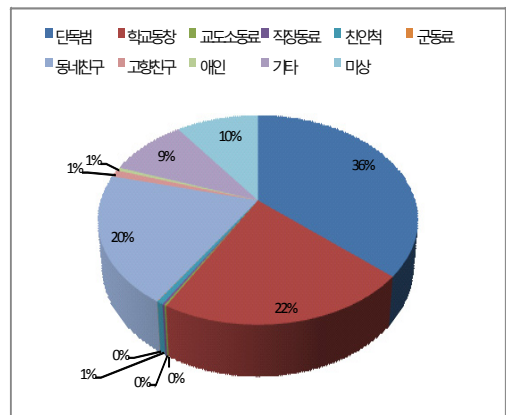
3.2 학교요인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학교요인으로는 주변 또래집단에 의해 발생하는 비행요인과 함께 상급학교진학과 같이 학교와 학생들 간의 지도와 관련된 요인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청소년 범죄는 또래집단의 영향으로 인해 청소년기에는 주변 또래 집단이 범죄성향 및 기타 관련 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주변 또래 집단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가족보다는 주변의 친구에게 보다 호의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함께하는 친구들과의 활동에 보다 호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래집단이 범죄에 영향을 주는 증거자료는 보기 어려우나 [표 4]에서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중 단독적인 활동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전체 청소년 범죄자 중 36%에 불과하였으나, 미상을 제외한 공범이 있는 경우는 54%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이 중 학교동창이 가장 높은 비율인 22%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동네친구가 20%를 차지하였다. 이후 고향친구, 친인척, 애인 등 비슷한 내용의 공범이 있었다.

표 4. 2009년도 청소년범죄자 공범관계



〈출처 : 2011 범죄백서, 검찰청 편집〉

이러한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 중 50% 이상이 공범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으며, 공범이 있는 경우 학교동창, 동네친구와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공범유무로 인해 범죄를 학습하는 차별적 접촉이론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공범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경우 비교적 접촉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학교동창과 동네친구와 함께 범죄를 저지르며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3.3 지역사회요인

청소년비행도 시대적·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비례해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비례해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7].

특히, 청소년기의 비행활동을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볼 때 사회·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한 빈곤 지역의 거주, 가출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에 난관인 취업기회의 부족, 유흥문화의 범람, 황금만능주의 등으로 인한 소외감 및 갈등, 형평성이 상실된 사회에서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좌절감 등이 포함될 수 있다[6].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범죄적 하위문화에 익숙하게 적응함에 따라 단순히 흡연, 음주 등의 지위비행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과 불법적인 행위에 직접 가담하게 되는 청소년 범죄로 발전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적 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적잖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6].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유흥문화의 범람, 황금 만능주의등과 같이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6]. 이러한 주변 환경적 특성은 청소년기의 심리학적 특성인 황성한 호기심과 함께 복합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요인을 주목하는 것은 사회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경찰을 비롯한 정부가 청소년 비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유해환경의 증가는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비행 및 범죄와 접촉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경찰의 단속과 지역사회와의 관심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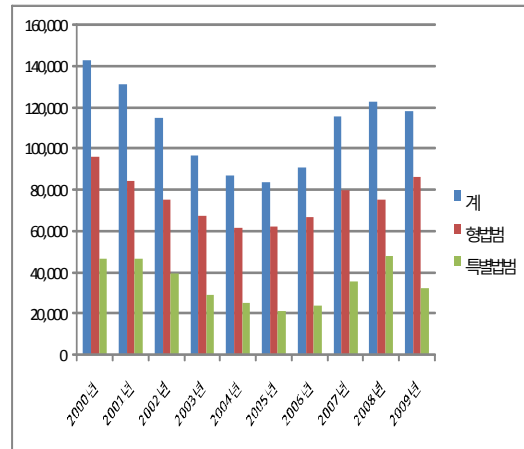
## III.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경찰활동의 문제점

### 1. 청소년범죄의 실태 및 문제점

최근 발생한 청소년 범죄자들의 발생실태를 살펴보면 2000년에 가장 많은 청소년 범죄자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2005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8년도까지 성장하는 실태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범죄자 중 형법범과 특별법범도 전체 발생 범죄자의 발생현황과 같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5년도를 기점으로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청소년 범죄 발생 현황



(출처 : 2011 범죄백서, 검찰청 편집)

청소년 범죄 중 전체 강력범죄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범죄별로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면, 살인의 경우는 2000년도에 비해 점점 감소하는 실정을 보이고 있었으나, 강도 및 강간, 방화, 절도, 폭력의 경우 2005년도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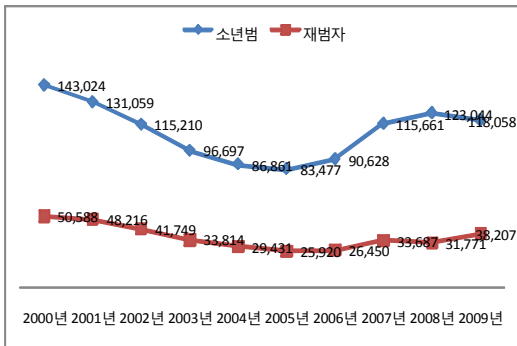
표 6. 2000~2009년 청소년 강력범죄자 발생현황  
(단위 :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살인	53	28	27	32	30	29	19	23
강도	1,618	1,836	1,409	1,032	1,181	1,399	1,604	2,100
강간	317	299	321	323	472	467	464	454
방화	53	58	82	146	142	218	235	209
철도	26,345	24,208	23,417	27,367	30,652	38,143	36,044	43,549
폭력	37,375	31,510	27,424	26,635	27,223	32,265	30,294	30,241

〈출처 : 2011 범죄백서, 검찰청 편집〉

그리고 지난 10년간 발생한 청소년 범죄자들의 발생 현황과 청소년 범죄자 중 재범자에 대한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범죄의 경우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나, 2006년 이후부터 2008년 까지 10만명 이상의 범죄자가 발생하였다. 비교적 큰 폭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청소년 범죄자 중 재범자들의 변화폭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5만 건 이상의 재범자가 있었으며, 2006년도까지 비교적 완만한 형태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2007년도 이후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7. 청소년 범죄자 및 청소년 재범자 발생 현황



〈출처 : 2011 범죄백서, 검찰청 편집〉

18세~19세의 청소년 범죄자는 2007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16세~17세의 범죄자는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부터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18세~19세의 청소년 범죄자보다 더 많은 범죄자가 발생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14세~15세의 청소년 범죄자는 2004년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4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자의 경우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청소년 범죄자의 지연령화를 증명하면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8. 청소년 범죄자 연령대별 범죄발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4세 미만	1,667	1,376	1,503	1,679	1,718	2,602	5,547	2,615
14세~15세	24,042	22,305	19,141	23,045	27,662	37,256	45,034	41,607
16세~17세	38,426	32,524	27,247	28,292	31,408	41,473	50,766	54,345
18세~19세	51,075	40,492	38,970	30,461	29,840	34,330	21,697	22,491

〈출처 : 2011 범죄백서, 검찰청 편집〉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청소년기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판단력이 약하고 충동적인 청소년들을 쉽게 불건전한 성인문화로 유혹하기 쉽다[6].

따라서, 청소년기 비행을 접하거나, 범죄자가 되는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일반인보다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 및 비행이 심각하다는 것은 청소년 범죄의 실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점점 강력화 되어가는 현상과 청소년 범죄자의 지연령화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 2. 경찰활동의 문제점

경찰의 활동에 있어서 청소년 비행에 대처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다. 우선 청소년 들은 일반범죄자와 달리 성년의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경력이 있는 범죄자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심신의 미숙함, 판단력과 자기통제성 부족, 단순하고 충동적인 청소년기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 즉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이유에 기인하여 범죄를 일으킨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성인의 그것처럼 기질화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처벌보다는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1].

현재 경찰은 장기적인 운영설계의 미흡으로 갈수록 저연령화, 폭력화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 비행은 사전에 방하지 못한 채, 단속과 실태조사에만 국한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행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1].

현재 청소년범죄에 대한 경찰의 활동에 대해 석청호의 연구에서는 경찰관들이 청소년범죄 처리에 대하여 훈방보다는 형사처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특성을 무시하고 경찰관에게 호의적인 태도 여부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3].

그리고, 현재 경찰에서 청소년 비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은 생각보다 큰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소년사법의 큰 흐름 중 하나인 다이버전의 경우 2003년부터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개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를 유도하는 경찰단계에서의 조기개입을 실행하고 있었으나, 그 효과성은 여전히 의문스러운 실정이다[8].

이러한 다이버전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이창한(2009)의 연구에서는 3월 간격으로 전체집단과 다이버전 참가집단의 구간 위험률을 살펴본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경우 경찰 처분 이후 초기 3개월 동안 위험율은 .021, 3개월부터 6개월은 0.71로 낮다가 6개월부터 9개월은 0.33의 위험율을 보인 이후 45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위험성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12]. 따라서, 경찰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예방 및 재범방지에 대한 활동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경찰에서 활용 중인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운영목표, 운영체계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를 통해 전문화와 과학화를 통해 새로운 발전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다이버전의 경우 모두 검찰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청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을 경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한 형태로 시행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등이 좋은 예이며, 이들 국가에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경찰단계에서부터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선도조건부 다이버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이버전을 실시하고 있는 법·제도적 수정이 필요하다[1].

#### IV. 청소년범죄에 대한 경찰활동

##### 1. 청소년비행에 대한 전문가의 활동 필요

청소년 비행과 청소년 범죄는 민감한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인해 비행에 대한 수사부터 최종 처리까지 매우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에 대해 수사경력이 풍부한 경찰관을 배치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및 가정환경적 요인에 의해 비행자 혹은 범죄자가 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의 여성 경찰관 배치 및 가정환경적 요인을 치유 및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경찰단계에서 다이버전이나 혹은 비행청소년 처분에 있어서 사법적인 처리를 자제하고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소년비행예방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에 인계 혹은 상담업무 명령 등 기타 경찰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는 처리와 연계하여 청소년비행 전문가를 통한 청소년비행예방 및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청소년 상담을 통해 비행원인을 진단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심리상담, 법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등의 업무를 통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있다.

일본의 소년보호센터는 1950년대 경부터 소년비행방지에 관계되는 행정기관 및 단체,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참가하여 소년보호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설치된 기관으로서, 비행소년의 발견 및 보도의 기능과 소년 상담 등의 사회사업적인 기능도 함께 가지며, 유해환경정화 활동을 경찰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13]. 그리고 미국에서는 소년사법과 비행예방사무국(OJJDP)와 함께 청소년비행이나 범죄에 대한 사후대처

보다는 사전예방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년사법 및 비행방지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을 통해 보다 많은 비행예방 및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비행을 예방하고 하고 있다 [13].

## 2. 경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전프로그램 개선

다이버전이란 유죄판결이라는 형사소송절차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는 커다란 흐름 가운데에서 그 종착점에 도달하기 전에 그 흐름의 일부를 방향전환하여 본류로부터 이탈시키는 일체의 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4].

다시 말해 다이버전은 범죄자를 양성하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형사사법제도를 통해 범죄자를 양성하는 방법 보다는 다이버전을 통해 다시 한 번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범죄자를 감소시키는 하나의 형사사법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이버전은 청소년 비행자에 대해 낙인효과 방지, 형사사법시스템의 업무량 폭주, 경미사건의 신속한 처리, 형사제재의 다양화를 위해서 비행 청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라는 제도를 통해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를 통해 다이버전을 실행하고 있다[15].

이러한 다이버전에 대한 선진국의 활용실태를 살펴 보면, 미국의 경우 청소년의 비행 혹은 범죄 발생 시 사법절차에 따른 처벌을 대신하는 다이버전 프로그램인 First Offender Program, Pre-Trial Intervention, Adjustment Service 등과 같이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주(State) 혹은 지역(County)별로 실정에 맞게 시행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행위로 체포된 청소년뿐만 아니라 범죄에 연계될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도 위 프로그램에 참여서 청소년 비행의 재범을 예방하고 있다[14]. 영국에서는 10세 이상 17세 미만 소년범들의 재범방지 및 선도방안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최종경

고제도(Final Warning Scheme)를 도입하여 실시 중이며, 제도 실시 이후 소년범 재범율이 22.5% 감소하여 소년범 재범방지 및 선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14].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창한(2009)의 연구에서와 같이 현재 경찰단계에서 활용중인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3. 청소년유해환경 관리의 강화

청소년 비행의 온상이라고 믿어졌던 주류판매업소를 중심으로 미성년자 출입 등에 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오늘날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유해 환경으로는 주류판매업소 외에도 다방, PC방, 노래방 등 다양하게 분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환경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6].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 유해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의 단속을 강화해야 하지만 최근에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는 멀티방이나 키스방 등과 같은 신종 유해환경을 정화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의 단속과 지도는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이고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여 관련업주에게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마인드가 형성되도록 하명한다. 무엇보다 음라성과 폭력성이 있는 음반·비디오·게임물·간행물 등 날로 쏟아져 나오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정화를 위한 단속과 함께 관련부처와 함께 관계법령의 정비가 병행될 때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7]. 그 결과 2009년에는 총 8,567명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하여 4명을 구속하고 8,56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5].

## 4.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관계 강화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경찰 및 형사사법기관 및, 교육기관, 민간기관, 정부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청소년 비행과 아울러 건전한 청소년 양성에 중점을 맞

추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기관의 업무 내용 및 담당부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경찰 및 형사사법기관에서는 청소년비행예방 업무를 담당하며 범죄발생 시 수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의 경우 경찰청 생활안전국 소속의 여성청소년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경찰청에서도 유사한 조직형태를 보이고 있다. 검찰에서는 경찰로부터 소치되거나 자체 인지, 고소·고발 된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 밖에 법원에서는 경찰·검찰로부터 보내온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정기관에서는 청소년 범죄자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갱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교육기관으로서 중앙의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의 시·도 교육청과 시·군·구 단위의 지역교육청으로 구조화되는데 시·도 교육청은 고등학교를, 지역교육청은 중학교·초등학교 등을 직접관장하여 경찰과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범죄예방 도는 직접적인 개입을 위한 연계활동을 요청받고 있다[16].

세 번째는, 민간기관으로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리기관으로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경호업체 및 기타 관련 기관을 들 수 있으며, 비영리기관으로는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사회복지기관 및 의료기관, 기타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기관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청소년 비행예방 및 청소년 비행으로 인한 피해학생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정부행정기관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지방행정기관 소속의 청소년과 및 기초단체 청소년계에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 및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은 한 개의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관련기관의 효과적인 유대관계를 통한 예방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종복(2001) 연구에서는 경찰과 학교와의 협조체제는 겨우 58.7%에 불과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는 56.3%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다[7].

경찰의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검거의뢰 집행, 적극적 소년관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관기관과의 업무교류를 통해 청소년 비행 및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범죄와 비행에 대해서 원인과 현행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청소년 범죄는 2000년대 중반 발생한 고교연합 폭력사건이 주도한 여중생 집단 성폭력 등 학교폭력 관련 강력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수립·추진하였다[15]. 그로 인해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지속적인 하향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2006년을 기점으로 청소년범죄와 관련된 모든 지표는 다시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죄발생 지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청소년 범죄자들의 자연평화를 꼽을 수 있다. 특히, 14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청소년범죄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청소년범죄의 자연평화를 문제삼을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의 주요 발생원인으로는 가정적 요인과 학교의 원인, 지역사회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가정적 요인으로는 청소년과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부모와의 관계단절, 가정환경으로 인한 범죄노출 빈도의 증가가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학교의 원인으로는 학교생활의 부적응, 범죄에 호의적인 또래집단의 영향이 원인이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적 요인으로는 청소년비행 및 범죄에 큰 영향을 주는 유해환경 등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인과 함께 기존 경찰 시스템 및 청소년비행 및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문제, 경찰관의 적절치 못한 대처, 기타 청소년 상담기관과 같이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기관의 부재 등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의 업무 중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비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는 형사사법기관 중 경찰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첫 번째, 경찰과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범죄를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청소년범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다이버전을 현실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세 번째, 청소년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유해환경을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제거하는 활동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경찰을 비롯한 교육부, 행정기관, 영리단체 등 청소년 비행 및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참 고 문 헌**

[1] 이수정, “경찰단계에서의 범죄소년 다이버전을 위한 비행성 평가절차의 재범예측력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21권, 제2호, pp.47-57, 2007.

[2] 광대경,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2009.

[3] 석창호, “경찰관의 비행청소년 처리태도에 관한 연구”, 민간경비학회보, 제5호, 2005.

[4] 이수정, “청소년비행의 발생현황과 사법처리 상의 문제점 및 보완책”, 경기교육논총, 제16호, 2007.

[5]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2010.

[6] 김종양,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제6호, pp.37-61, 2003.

[7] 이종복, “청소년 비행방지를 위한 경찰의 유해환경 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1권, 제2호, pp.81-100, 2001.

[8] 이수정, “경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전 대상 범죄소년의 비행성 평가”, 경기교육논총, 제15호,

pp.37-60, 2006.

[9] 김 경, “청소년 비행행동에 있어서 부모요인과 친구요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2권, 제4호, pp.1-21, 2010.

[10] 김종수, “소년경찰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의식 및 역할”, 한국공안행정학회, 제25호, pp.177-208, 2006.

[11] 박은민, “아동학대로 인한 가출·비행 청소년의 현상과 경찰의 조력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1호, pp.316-324, 2009.

[12] 이창환, “경찰의 소년범 다이버전에 대한 효과성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7호, pp.345-367, 2009.

[13] 원혜옥, “소년비행예방센터의 현황과 과제”, 소년보호연구, 제12호, pp.69-92, 2009.

[14] 노호래,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다이버전”, 법학연구, 제19호, pp.347-366, 2005.

[1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백서*, 보건복지가족부, 2009.

[16] 박상주, “경찰의 청소년비행예방 활동에 있어 유관기관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호, pp.135-168, 2008.

**저 자 소 개**

이 하 섭(Ha-Sub Lee)

정회원



- 2002년 2월 :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경영학사)
- 2006년 2월 : 동국대학교 공안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11년 2월 : 한성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현재 :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보안경찰, 통일경찰론, 북한이탈주민, 위기관리

조 현 빈(Hyun-Bin Jo)

정회원



- 1999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행정학사)
- 2001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법학석사)
- 2004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현재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범죄, 위기관리, 경찰조직, 경찰인사